

자유간접화법의 불한 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박 선 희
(고려대)

1. 서론

화법은 화자가 다른 이의 ‘말’이나 ‘생각’ 등을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구도를 문학 텍스트로 적용하여 보면, 문학 텍스트에서 화자는 서술자인데, 서술자가 등장 인물(이하 인물)의 ‘말’이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화법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자유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Libre, 이하 DIL)¹⁾은 구어에서도 나타나지만²⁾, 특히 문학 텍스트에서 그 문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103).

1) 자유간접화법은 영어로는 보통 ‘Free Indirect Discourse (FID)’로 표기되는데, 본 연구는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이므로 자유간접화법을 포함한 화법들의 명칭을 프랑스어 약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DIL은 다른 화법들과는 달리 한 구문 내에서 서술자의 음성과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면서도 두 타자의 음성을 형태적인 표지로 분리할 수 없는 다음성(polyphonic)적인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 의해서 문체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DIL은 모든 로망스어군과 게르만어군, 슬라브어군에 나타나며, 그 외에도 리투아니아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터키어, 힌두어, 요르바어 등에서 발견되는데(Fludernik 1993: 99), 이것은 DIL 현상이 대부분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IL은 프랑스어 소설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그렇다면 두 언어의 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DIL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번역될지 흥미를 갖게 된다. DIL 번역에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문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언어적인 차이이다. 두 언어에 DI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언어에서 DIL을 만들어내는 통사적인 조건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프랑스어의 DIL에 담긴 다음성적인 모호성을 한국어 DIL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

먼저 DIL의 다음성적 모호성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다음성을 만들어 내는 DIL의 지표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 DIL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다른 언어들의 DIL 번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문제들과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DIL의 다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DIL의 지표들을 알아낸 뒤에 한국어 DIL 지표를 이용한 프랑스어 DIL의 다음성 재현 방안을 제안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로베르(Flaubert)의 소설, 『보바리 부인 *Madame Bovary*』의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난 프랑스어 DIL의 한국어 번역 사례를 통하여 다음성 재현의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프랑스어의 구어에서 DIL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오테-르뷔(Authier-Revuz, 1992)에서 참고 가능하고, 한국어의 구어에서 DIL이나 자유직접화법(Discours Direct Libre, 이하 DDL) 같은 ‘자유 화법’이 빈번히 사용되는 사례는 강이연(2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자유간접화법의 다음성

우선 DIL이 무엇인지, 그리고 DIL과 다른 화법 형태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마다 다루는 화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접화법(Discours Direct, DD), 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DI), DIL, DDL을 전형적인 네 가지 화법 형태로 꼽을 수 있겠다.

다음은 이 네 가지 화법 형태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시한 것이다.

DD:	Il dit : « J'aime Emma. »	(He said "I love Emma.")
DI:	Il dit qu'il aimait Emma.	(He said (that) he loved Emma.)
DDL:	J'aime Emma.	(I love Emma.)
DIL:	Il aimait Emma.	(He loved Emma.)

DD와 DI는 'Il dit (que) (영어는 He said (that)~)'과 같은 화법의 인용 도입구에서 의해서 화자(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다른 사람(인물)의 '말' 또는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을 표지한다.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DD를 사용할 것이고, 자신의 시점으로 완전히 바꾸어 전달할 때는 DI를 선택할 것이다. DDL은 DD의 인용절의 구문이 인용 도입구 없이 그대로 제시되는 것이고, DIL은 DI의 인용절의 구문이 인용 도입구 없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 텍스트에서 DIL이 사용될 경우, 인용의 도입구에 의해서 서술과 구분되는 DD와 DI와는 달리, 그리고 동사 시제와 인칭대명사에 의해서 서술과 구분되는 DDL과는 달리, DIL은 인용의 도입구와 같은 형태적인 표지도 없으며 동사 시제나 인칭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서술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DIL은 서술과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서술이 아닌 인물의 '말' 또는 '생각'이 재현된 DIL이라는 것을 맥락과 지표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DIL은 형태적인 면에서 다른 화법들과 차이를 보이지만 다음성적 특징에 있어서도 다른 화법들과는 다르게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구분되지 않고 구문 내에서 그들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다음성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

는데, 이러한 DIL의 형태적 특성과 다음성적인 모호성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DIL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성이란 한 단어나 한 문장 혹은 한 구문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한 구문 내에서 말하는 주체가 여럿인 경우를 말한다. DD와 DI도 다음성이 존재하지만 인용의 도입구로 인해서 누가 누구의 말 또는 생각을 전하는지—소설의 서사 구조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말 또는 생각을 전하는지—그 구분이 명확하고, DDL의 경우는 서술자의 음성은 최소화되고 인물의 음성만 부각되는 반면에, DIL의 경우는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면서도 두 화자를 구분할 만한 통사적인 표지가 없는 다음성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티에-르뷔(1992: 41)는 DD와 DI는 인용의 표지가 있는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형태(*formes marquées, univoques*)이지만, DIL과 DDL은 순전히 해석적인 형태(*formes purement interprétatives*)라고 말한다. 그리고 스카포린 그룹(ScaPoLine)(Nølke, Henning et al. 2004: 64)은³⁾ DD와 DI는 소설의 서술자가 인물의 담화 재현을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말함(dire)’으로써 원래 담화와 그것의 재현 사이의 유사성을 공개적으로 책임지는 ‘공개된 다음성’이라면, DIL과 DDL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담화 재현을 ‘제시함(montrer)’으로써 인물을 해당 장면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고 자신은 그 뒤에 숨는 ‘감춰진 다음성’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3. 자유간접화법의 지표들

그렇다면 텍스트 내에서 DIL을 감지하게 하는 DIL의 지표들(*indices*)은⁴⁾

-
- 3) 스카포린 그룹(SCAndinave de la POLyphonie LINGuistiquE, 약어로 ScaPoLine)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언어학과 문학연구자들의 연구 그룹으로서 바흐친과 뒤크로를 뒤이어 담화의 다음성을 연구한다.
- 4) DIL 관련 용어들 중에서 지표(*indices*)와 표지(*marqueurs, signes*)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고(라고)’, ‘다는(라는)’ 등은 화자가 다른 이의 담화를 전달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인용의 ‘표지’이지만, DIL의 ‘지표’들은 DIL 구문에서만 고유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여러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DIL의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어로 된 DIL 구문 하나를 검토해볼 것이다.

다음은 플로베르의 소설, *Madame Bovary*에서 발췌한 예로서 이탤릭체로 강조된 부분이 DIL에 해당한다.

À la fin pourtant, il [Lheureux] reprit :

– Nous [Lheureux et Charles] nous sommes rapatriés, et je venais encore lui proposer un arrangement. (DD)

C'était de renouveler le billet signé par Bovary. Monsieur, du reste, agirait à sa guise; il ne devait point se tourmenter, maintenant surtout qu'il allait avoir une foule d'embarras. (DIL)

– Et même il ferait mieux de s'en décharger sur quelqu'un, sur vous, par exemple ; avec une procuration, ce serait commode, et alors nous aurions ensemble de petites affaires... (DD)

Elle[Emma] ne comprenait pas. Il se tut.

(*Madame Bovary* 1971: 259-260; 박선희 2011: 136-37에서 재인용.)

이 장면은 여주인공 엠마(Emma)와 마을의 간교한 상인 뢰뢰(Lheureux)의 대화 장면이다. 뢰뢰와 어음 거래를 한 보바리 부부는 뢰뢰에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가 어렵게 되자 뢰뢰가 찾아와서 어음을 갹신하라고 꺾드기는 장면이다. 두 DD 사이에 위치한 이탤릭체 구문은 얼핏 보면 서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구문을 읽어보면 맥락 상 뢰뢰의 ‘말’이 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DD가 모두 뢰뢰의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이 DD-DIL-DD로 재현된 것이다.

그러면 이탤릭체 구문이 DIL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은 해당 구문을 읽어보면 텍스트의 맥락에 의해서 뢰뢰의 ‘말’이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굵게 표시된 ‘Ce(그것)’와 ‘Monsieur(무쉴)’, ‘du

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술이나 다른 화법에서도 DIL의 ‘지표’들과 동일한 언어적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DIL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언어적 특징들을 DIL의 ‘표지’라 하지 않고 ‘지표’라고 하기로 한다.

reste(물론)', 'maintenant(지금)', 'surtout(특히)'의 어휘들은 DIL을 알아보게 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DD에서처럼, 퇴퇴의 발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Monsieur(무슈)'라는 존칭과 'du reste(물론)', 'surtout(특히)'와 같은 양태 표현들, 그리고 문장의 과거 시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시 부사 'maintenant(지금)'과, 지시 대명사 'Ce(그것)' 같은 지시소(déictique)들은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DIL의 지표들이다. 반면에 해당 구문의 과거 시제는 서술자의 시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탤릭체로 된 구문들은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혼합된 DIL에 해당한다(박선희 2011: 137 재인용).

위 예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맥락과 DIL의 지표들을 통해서 텍스트 안에서 DIL을 감지할 수 있다. DIL의 지표들은 서술자의 음성과 인물의 음성을 한 구문 내에서 혼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두 화자의 다성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따라서 DIL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성적인 모호성을 만들어 내는 DIL의 지표들을 제대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ST(원문)과 TT(번역문)의 언어들은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DIL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DIL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표 1>과 같이 여러 언어들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DIL 구문의 내부 지표들을 문법(통사), 문체, 활자의 범주로 분류해볼 수 있다(Taivalkoski-Shilov 2006: 215 ; Jansson 2006: 13 참고; 박선희 2011: 138에서 인용).

〈표 1〉 자유간접화법 지표의 범주별 분류

범주	지표
문법 (통사)	동사 시제와 지시소의 불일치
문체	구어, 방언, 은어, 반복, 주저함, 미종결문 등
활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등

문법(통사) 지표는 각 언어들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DIL의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문법 지표로는 서술자 시점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에 적합한) 인물 시점의 지시소가 한 구문 내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울릴 수 없는 두 요소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모호한 다음성을 발생시킨다. 문체와 활자 지표는 여러 언어들에서 큰 차이 없이 발견되는 지표들로 주로 인물의 음성을 DIL 구문 내에서 돌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문체 지표들은 구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속어나 반복, 주저함 등의 문체적 특징들에 해당한다. 활자 지표들은 DIL 구문에 양태성을 부여하는 구두점들이나 해당 표현이 서술자의 음성이 아니라 인물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탤릭체나 굵은 글씨와 같은 활자 표시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DIL의 지표들은 한 구문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그 조합 또한 자의적이므로 작가마다, 동일 작가의 작품이라도 그 작품들마다 DIL의 특성은 다르기 마련이며 이것은 작가들의 문체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4. 자유간접화법 번역의 선행 연구

DIL의 번역에서는 번역의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 체계 차이가 가장 큰 어려움을 유발한다. DIL의 다음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성을 만들어내는 지표들을 제대로 번역해내야 하는데 두 언어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출발어의 지표를 도착어에서 온전히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DIL의 한국어 번역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은 다른 언어들 간의 DIL 번역에서는 어떠한 언어적인 차이가 문제가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박선희(2011)에서는 DIL 번역 이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DIL의 지표 번역과 관련된 루히아이넨(Rouhiainen 2000)과 요나손(Jonasson 2004)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자(박선희 2011:143-45).

루히아이넨(2000: 119)은 영어와 핀란드어의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차이가 DIL 번역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영어의 3인칭 단수 대명사는 ‘he’와 ‘she’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만, 핀란드어의 3인칭 단수 대명사는 ‘hän’ 하나이므로 성별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의 ‘he’나 ‘she’를 핀란드어 3인칭 대명사 ‘hän’으로 그대로 대응 번역할 경우, DIL이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남자의 담화인지, 여성의 담화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핀란드어 번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물의 이름인 고 유명사로 바꾸거나 지시대명사 ‘täma(이것)’이나 대용형(proforme)인 ‘mies(그 남자)’, ‘tyttö(그 소녀)’ 등으로 대체 번역을 하게 된다.

다음의 예는 ST의 ‘He’를 TT에서 대용형인 ‘Mies, *Miehessä*(tha man, 그 남자)’로 번역한 예이다. ST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이 그 앞 문장에 등장하는 여성(She)의 ‘생각’이 DIL로 재현된 구문들이다.

ST: She felt almost mesmerized. **He** was strange to her, something unknown. What was he thinking, what was he feeling, as he stood there so rapt, saying nothing? **He** kept her - she could feel that. He would not let her go. (Lawrence 1971:365)

TT: Hän tunsi itsensä melkein kuin hypnotisoiduksi. **Miehessä** oli jotain outoa, jotain tuntimatonta. Mitä hän oikein ajatteli, mitä hän tunsi seistessään siinä ajatuksiinsa vaipuneena, mitään puhumatta? **Mies** piti kiinni hänestä - Gundren saattoi tuntea sen - eikä päästäisi häntä. (Lawrence 1980: 421)⁵⁾

(She felt almost hypnotized. There was something strange about **the man**, something unknown. What was he thinking, what was he feeling, as he stood there deep in thought, saying nothing? **The man** kept her - Gundrun could feel that - and would not let her go.) (Rouhiainen, 2000: 119)

그런데 루히아이넨에 의하면, 이처럼 DIL의 주어가 인칭대명사가 아닌 고 유명사나 지시대명사, 대용형 등으로 번역이 되면, DIL과 서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ST의 DIL에 담긴 인물의 의식의 재현이 TT에서는 서술자의 이야기(récit)로 읽혀지므로 독자들이 해당 구문들을 DIL로 인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⁶⁾

5) ST는 David Herbert Richards Lawrence의 *Women in Love* (1971[1921])이고 TT는 Rauno Ekholm이 번역한 *Rakastuneita naisia* (1980)이다.

6) 그러나 루히아이넨이 제공하는 TT의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He가 TT에서 대용형으로 번역된 것이 DIL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할지라도, TT에는 여전히 something strange, something unknown이나 What was he thinking, what was he feeling과 같은 반복 문체와 saying nothing?처럼 물음표를 사용한 의문문이

요나손(Jonasson 2004)은 프랑스어로 된 서사 텍스트 안에서 DIL을 감지하게 하는 지표들로 단순과거와 반과거의 동사 시제 차이와 부정대명사 ‘on’, 그리고 지시사(article démonstratif) ‘ce’를 지목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통사 요소들이 스웨덴어에도 대응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의 그것들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어로 대응 번역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스웨덴어 통사 체계 내에서 가능한 다른 방식으로 DIL의 다음성을 재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프랑스어와 스웨덴어 동사의 과거 시제 차이가 문제가 된다. 프랑스어에는 단순과거와 반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DIL에서는 주로 반과거가 많이 사용되고, 서술에서는 주로 단순과거가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단순과거와 반과거 시제의 대비가 서술과 DIL을 구분하여 주는 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웨덴어에는 과거 시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단순 과거와 구별되는 반과거의 상적인 차이를 번역에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동사 시제로는 DIL 구문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스웨덴어 번역자들은 DIL 구문에서 서술자 시점을 표시하는 동사 시제가 지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인물 시점의 지표인 지시 부사 ‘nu’(지금)를 부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서술자 시점의 과거시제와 인물 시점인 지시 부사 ‘nu’(지금)를 조합하여 다음성적인 특성을 만듦으로서 DIL 구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어 부정대명사 ‘on’의 번역이 문제가 된다. 프랑스어에서 ‘on’은 맥락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우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DIL 구문에서 ‘on’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서술자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의미로 본다면 인물의 직접 발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어에도 부정대명사 ‘man’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 부정대명사 ‘on’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man’은 ‘우리’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on’과는 달리 다음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어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통합하여 고려하면 여전히 핀란드어 TT에서도 DIL로 읽힐 가능성이 엇보인다.

ST: Jeanne consultée sur le pays qu'elle voulait visiter se décida pour la Corse où *l'on* devait être plus seuls que dans les villes d'Italie (Maupassant, 44)

TT: Då de frågade Jeanne vilket land hon ville resa till bestämde hon sig för Korsika, där *de säkert* skulle få vara mer i fred än i de italienska städerna. (Berglund, 36)

(... où *ils* seraient *sûrement* laissées plus en paix que dans les villes italiennes.)

(Jonasson 2004: 207 인용 ; 이탤릭체는 DIL 구문 표시)⁷⁾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처럼, ST의 ‘on’을 TT에서는 3인칭 복수 대명사인 ‘de(ils, 그들)’로 번역하는 대신, ST에는 없는 양태 부사 ‘säkert(확실히)’를 부가하여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즉 스웨덴어 DIL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인 지시소, 양태소, 구어 표현 등으로 대체하면 인물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on’에 담긴 다성적인 목소리의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의 지시사 ‘ce(그(것), 이(것))’는 앞에 나온 어구를 가리키는 조용적인 기능과 지시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조용적인 기능을 할 때는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고 지시적인 기능을 할 때는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므로 DIL의 다음성을 표시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프랑스어 지시사가 서술자의 음성으로도 해석되고 인물의 음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화행적 지위를 갖는 반면에 스웨덴어 지시사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ce는 스웨덴어 번역에서는 지시사가 아닌 정관사로 자주 대체 된다는 것이다.

ST: Quoi qu'il vît clair en les hommes, il ne savait pas, pour autant, se défendre contre leurs entreprises, c'est pourquoi il écoutait avec un sourire d'ange *ce* notaire qui l'emberlificotait dans des comptes d'homme de loi.

Que disait-il ce notaire? Il parlait de la guerre précisément.

7) ST는 Guy de Maupassant의 *Une Vie* (1883)이고 TT는 Gunilla Berglund이 번역한 *Ett liv* (1968)이다.

(Magnan, 30)

TT: Även om han genomskådade dem kunde han inte försvara sig mot deras konst, och därför lyssnade han **nu** med ett enfaldigt leende till notariens förbryllande lagstermer.

Vad sade nu notarien? Jo, han pratade om kriget. (Angelfors, 19)

(Quoi-qi'il vît clair en eux il ne pouvait pas se défendre contre leurs artifices, et pour cela il écouta(it) **maintenant** avec un sourire ligénu les déconcertants termes de loi *du* notaire.

Que disait/dit **maintenant** le notaire ? **Oui**, il parlait de la guerre.)

(Jonasson 2004 : 203-4 인용)⁸⁾

ST의 *ce*는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DIL의 지표역할을 하지만 TT에서는 이런 기능을 살릴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ST에는 없던 지시 부사 'nu'(maintenant, 지금)를 TT에 추가함으로써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ST의 DIL에 담긴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 혼합을 TT에서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5. 프랑스어와 한국어 자유간접화법의 다음성 재현

위에서 살펴본 요나손(2004)을 통해서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언어적 차이로 출발어의 DIL 지표를 도착어에서 재현할 수 없을 때 도착어 DIL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을 활용하여 DIL의 다음성을 재현하는 번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DIL 번역에서도 두 언어의 DIL 지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DIL의 다음성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DIL의 통사적인 특징과 그 지표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8) ST는 Pierre Magnan의 *La maison assassinée* (1984)이고, TT는 Christina Angelfors가 번역한 *Stenängeln* (1986)이다.

5.1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과 지표

프랑스어 DIL 구문의 지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다음은 로제 마르탱 뒤 가르(Roger Martin du Gard)의 『티보가의 사람들 *Les Thibault*』에서 발췌한 DIL의 예이다.

Mme de Fontanin hésitait. Son sourire était douloureux.

①- « Mariette... donnez-moi l'adresse de Monsieur. »

② La jeune fille devint pourpre ; ses yeux, où montaient des larmes, restaient grands ouverts. ③ *L'adresse ?* ④ Elle secoua la tête, ⑤ *elle ne savait pas ; c'est-à-dire elle ne savait plus ; Monsieur n'habitait pas dans l'hôtel où ... Et puis, Monsieur l'avait quittée presque tout de suite.*

⑥ Mme de Fontanin avait baissé les yeux et reculait vers la porte, pour se soustraire à ce qu'elle eût pu entendre encore.

(Roger Martin du Gard, Oeuvres Complètes, Tom I, Gallimard, 1955.)

603; 정지영 1996 : 1185에서 재인용; 이탤릭체는 DIL을 가리키며 저자 강조임.)

위 예문에서는 폰타넵 부인(Mme de Fontanin)과 마리에트(Mariette)라는 아가씨의 대화가 교환되고 있는데 이탤릭체로 강조된 ③과 ⑤가 마리에트의 ‘말’ (혹은 ‘생각’)이 재현된 DIL 구문에 해당한다.

우선 서술 구문인 ②와 ④는 단순과거 시제(*devint, secoua*)로 기술된 반면에 DIL 구문인 ⑤는 반과거 시제(*savait, habitait*)가 사용되어 동사 시제에서부터 서술과 DIL이 차이를 보인다. DD인 ①에서 폰타넵 부인은 마리에트에게 남편의 행방을 묻는데 이에 대한 마리에트의 반응이 DIL인 ③과 ⑤로 표현되어 있다. ③은 마리에트의 ‘말’인지 ‘생각’인지 모호하지만, ⑤는 마리에트의 ‘말’이 DIL로 재현되어 있으며, 서술인 ⑥에 나타난 부인의 반응으로 보아 ⑤가 마리에트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IL인 ③과 ⑤에서는 마리에트를 지칭하는 3인칭대명사 ‘elle(그녀)’와 반과거와 대과거 시제에 서술자의 음성이 담겨있는 반면에, 물음표, 말줄임표, ‘Monsieur(무슈)’라는 존칭, 반복 구문, ‘presque tout de suite(곧 바로)’의 구어 표현 등에는 마리에트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DIL 구문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다음성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DIL의 내부 지표를 통사, 문체, 활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프랑스어 DIL 내부 지표

범주	지표
문법 (통사)	서술자 시점 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 등), 서술자 시점 동사 시제(반과거 등), 인물 시점의 지시소
문체	구어, 속어, 방언, 은어, 반복, 주저, 양태, 미종결, 도치 등
활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쌍반점(;), 쉼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등

통사 지표에서 인칭대명사와 과거 시제가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낸다면, 통사 지표의 지시소와 문체, 활자 지표들의 요소는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며, 이 요소들이 자의적으로 조합하여 다음성을 만들어낸다.

5.2 한국어 자유간접화법과 지표

한국어 소설에서도 DIL과 DDL은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일부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 소설에 나타난 DIL이 서구의 DIL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언어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DIL의 통사적인 특징이나 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어와 한국어 DIL 번역을 위해서는 한국어 DIL을 구성하는 지표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DIL의 지표들을 제안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소설 텍스트에서 사용된 DIL의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DIL이 재현하는 대상은 인물의 ‘말’이나 ‘생각’ 등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인물의 ‘말’이 재현된 DIL 구문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이태준의 「오몽내」에서 발췌한 인물의 ‘말’이 재현된 DIL 구문의 예이다.

① 남은 우선 지참봉의 입을 막아놔야겠기에 모두 자기의 짓이라 거짓자백하였다. ② 그리고 정말 자기도 오몽내가 아쉽다. ③ 어떤 놈의 짓인지, 이 밤으로 거리의 술집을 뒤지고 서수라나 웅기까지 가더라도 기여이 오몽내를 찾아내고 싶었다. ④ 남순사는 지참봉에게 오늘 밤으로 오몽내를 데려온다고 장담하고 나왔다. (이태준, 『오몽내』, 『달밤』, 깊은샘, 1925 :26; 전성기 2005: 246에서 재인용.)

예문에서 이탤릭체 부분인 ②와 ③이 서술자와 인물인 ‘남순사’의 말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DIL 구문이다. 인용의 표지가 없고 서술문과 같은 문어형 종결어미 ‘~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의 형식으로는 인물의 ‘말’이 재현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DIL 구문 앞뒤에 나타나는 시작과 종결표지를 통해서, 그리고 DIL 구문 내부에서 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어휘들로 인해서 남순사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남은 [...] 거짓자백하였다’와 ④ ‘남순사는 [...] 장담하고 나왔다’로 인해서 남순사의 말이 시작되고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 사이에 위치한 ②와 ③이 남순사의 ‘말’이 재현된 구문이라는 것을 알리는 DIL의 시작표지와 종결표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①에서 ④까지 읽어보면 맥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②와 ③도 남순사의 ‘말’이 연속되는 구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②와 ③에 사용된 몇몇 어휘들은 DIL임을 알리는 DIL의 지표 역할을 한다. 우선 ②와 ③에서 ‘정말’, ‘어떤 놈의 짓인지’, ‘이 밤으로’ ‘기어이’는 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노출하는 구어 표현이다.

DIL 구문의 인칭대명사를 살펴보면, 문장 ②에서 남순사를 가리키는 주어는 서술자 시점인 ‘그도’도 아니고 인물 시점인 ‘저도’도 아닌 ‘자기도’이다. DIL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정지영 1996; 전성기 2005)은 3인칭 대명사 ‘자기’를 한국어 DIL의 지표로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문장 ③에서는 남순사를 가리키는 주어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종결어미와 동사 시제를 살펴보면, DIL인 ②와 ③은 종결어미를 ‘아쉽다’, ‘싶었다’로 DI인 ①과 ④와 동일한 문어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DI의 어미는 ‘이라 거짓자백하였다’나 ‘다고 장담하고 나왔다’처럼 ‘-이라’, ‘-다고’의 인용형 어미를 동반하지만 DIL의 어미는 인용형 어미 없이 서술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사 시제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①과 ④의 서술자

시점인 DI의 종결어미는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DIL인 ②와 ③의 종결어미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말’ 구문 ②와 ③에서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인용의 표지 없는 문어형 종결어미와 과거 시제, 3인칭 대명사이며, 인물의 음성은 구어표현들과 현재 시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문도 이탤릭체인 ②가 DIL에 해당한다.

① 그녀는 지루했던지 묻지도 않은 말을 구관조처럼 뇌까려댔다. ② **걸으**
로는 실속없어 보이지만 알짜 장사를 하고 있단남들은 거의가 다
채도장 현장사무소 사람들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돈 뿌려대는 사람들은
뛰니뛰니해도 노가다들이다일부러 영빈궁만 찾는 아파트 손님들도 스
무 명은 념을 거다가까운 술집 놔두고 왜 여기까지 내려오겠느냐 ~

(천승세 <原石>) (김홍수 2000: 132 인용)

①의 ‘말을 구관조처럼 뇌까려댔다.’는 ‘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DIL의 시작표지에 해당한다. ②에서는 인물인 ‘그녀’의 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어형 종결어미로 이루어진 구문들을 계속 쉽표로 처리하고 있다. 마침표로 각 ‘말’ 구문을 종결시키는 것보다 쉽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덜 새없이 수다는 떠는 ‘그녀’의 말의 양태와 속도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고 있다. 게다가 그녀의 덜 새 없는 수다가 구어 표현들과 함께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문들이 문어형 종결 어미들인 ‘하고 있다’, ‘노가다들이다’, ‘념을 거다’, ‘내려오겠느냐’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거의 DDL로 느껴질 정도이다. 따라서 ②는 서술자의 목소리보다 인물의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게 들리는 DIL로서 문어형 종결어미가 작게나마 서술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예문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어 DIL의 지표들을 <표 3>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3〉 한국어 DIL 내부 지표

범주	지표
문법 (통사)	서술자 시점의 인칭 대명사 사용 혹은 생략, 동사 시제는 서술자 시점의 과거 시제 또는 인물 시점의 현재 시제 둘다 가능, 서술자 시점의 (인용 표지 없는) 문어형 종결어미 인물 시점의 지시소,
문체	구어, 방언, 은어, 반복, 주저함, 양태, 미종결문, 단문, 경어법
활자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쉼표, 이탤릭체, 대문자, 굵은 글씨

5.3 자유간접화법의 지표를 통한 다음성 재현

앞에서 정리한 프랑스어와 한국어 DIL의 지표를 비교하여 보면 두 언어 간의 지표 차이를 알 수 있고, DIL의 번역시 지표를 통한 다음성 재현 방안을 정립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체나 활자 지표에서는 두 언어 사이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가 가장 큰 통사 지표의 경우만 비교하여 보자.

〈표 4〉 프랑스어와 한국어 DIL 통사 지표 비교

범주	지표	프랑스어	한국어
문법 (통사)	인칭 대명사	서술자 시점의 인칭대명사 생략 불가	서술자 시점의 인칭대명사 생략가능, '자기'로 대체
	동사 시제	서술자 시점의 과거 시제	서술자 시점의 과거 또는 인물 시점의 현재시제
	문어형 종결어미	없음	서술자 시점으로 다양하게 사용됨
	지시소	인물 시점으로 사용됨	인물 시점으로 사용됨

DIL에서 인칭대명사는 항상 서술자 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의 소설인 경우에는, 항상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 그리고 1인칭 시점의 소설

인 경우에는, 화자인 서술자가 인물인 자신을 지칭할 경우에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작품 속 다른 인물의 ‘말’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 즉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DIL의 인칭대명사는 항상 서술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프랑스어 DIL에서는 서술자 시점의 인칭대명사가 문법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어 DIL에서는 서술자 시점의 인칭대명사가 맥락에 따라서 사용될 수도 있고 생략이 될 수도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대명사 ‘자기’가 한국어 DIL에서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L의 동사 시제도 차이가 난다. 프랑스어 DIL에서는 동사 시제는 항상 서술자 시점으로 나타나므로 서술자 시점에 맞추어 과거 시제로 나타나지만 한국어 DIL에서는 서술자 시점인 과거 시제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인물 시점인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동사 시제보다는 자유롭다. 따라서 프랑스어 DIL의 동사 시제는 서술자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 DIL의 동사 시제는 서술자 시점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인물 시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 DIL과 한국어 DIL의 가장 큰 통사적인 차이는 프랑스어에는 없는 종결어미가 한국어에는 존재하며 서술자 시점인 (인용 표지 없는) 문어형 종결 어미로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어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전성기(2005: 253-58)는 한국 소설에서 사용되는 DIL의 종결 어미들을 쉼표와 함께 사용되는 ‘~다,’, ‘~인가,’ 외에도 ‘~리라’, ‘~보다’ 등의 추측형 어미, ‘~느냐’, ‘~구나’, ‘~겠다’ 등의 문어체 어미, ‘~아라’, ‘안된다’, ‘~야 한다’ 등의 명령형 어미, ‘~다(라)는 것이(였)다’ 등의 인용형 어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인용형 어미 ‘~다(라)는 것이(였)다’와 비슷한 ‘~ㄴ(는) 것이다’도 한국어 DIL 구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인용형 어미 ‘~다(라)는 것이(였)다’는 DIL이 아닌 DI의 어미로 본다. ‘~다(라)는’은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를 전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DI에서 사용되는) 인용 표지이므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 경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DIL의 다음성적인 모호성을 재현할 수 없는 어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어 DIL의 다음성적인 혼합에서 서술

자의 음성(시점)을 담고 있는 지표들은 서술자 시점의 인칭대명사, 과거 시제, 문어형 종결어미인데, 앞의 예문들에서 확인하였다시피, 한국어 DIL에서는 인칭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고, 과거 시제뿐 아니라 인물의 발화 시점과 동일한 현재 시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안정적인 장치가 한국어 DIL에서는 문어형 종결어미 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프랑스어 DIL의 한국어 번역시, 프랑스어의 3인칭대명사와 과거 시제가 한국어 DIL에서는 반드시 그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T의 모든 언어적 요소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면 도착어 구문의 통사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한 TT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인칭 대명사와 과거 시제는 한국어 구문의 맥락에 맞게 적절히 변조하되, 매 구문마다 (인용표지 없는) 문어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자의 음성을 표현하고, 지시소나 기타 문체/활자 지표들로 인물의 음성을 나타내어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혼합시킨다면 프랑스어 DIL의 다음성을 한국어 DIL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의 실패

그렇다면 프랑스어 DIL이 한국어로 번역된 실제 사례를 통하여 ST의 DIL에 담겨진 모호한 다음성적인 특성이 한국어에서는 적절하게 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현 가능한 번역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 대상 텍스트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Madame Bovary*』을 선택하였다. 플로베르는 프랑스 문학사에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사실주의적인 기술 방식의 도구로 DIL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바리 부인』의 텍스트는 많은 프랑스어 DIL 연구자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특히 오티에-르뷔(1993: 14)는 플로베르의 DIL은 서술자의 음성과 인물의 음성 사이의 경계를 쉽게 포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바리 부인』의 DIL 번역에 있어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혼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IL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화자의 음성이 항상 같은 비율로 혼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지에(Rosier 2008: 90-91)는 DIL을 ‘모방적인 DIL (DIL mimétique)’과 ‘서술적인 DIL (DIL narratif)’로 구분한다. ‘모방적인 DIL’은 DIL 구문에 인물 발화의 양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물의 음성을 비슷하게 모방하므로 서술 맥락과 상대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반면에, ‘서술적인 DIL’은 인물 발화의 양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술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맥락에 의존하여 DIL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이다. DD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인물 발화의 양태는 DIL의 문체 지표와 활자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낸다. 따라서 DD처럼 인물 발화의 양태가 두드러지는 ‘모방적인 DIL’은 서술자 보다는 인물의 음성이 더 두드러지는 DIL이고 인물 발화의 양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술적인 DIL’은 서술자의 음성이 더 많이 혼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어 DIL의 한국어 번역을 ‘모방적인 DIL’의 사례와 ‘서술적인 DIL’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DIL은 인물의 ‘말’과 ‘생각’, ‘지각’ 등을 재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말’이 재현된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6.1 ‘모방적인 DIL’의 번역

전술하였다시피, 인물 발화의 양태가 드러나는 ‘모방적인 DIL’은 ‘서술적인 DIL’에 비하여 서술과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해당 구문이 DIL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ST: La mère de Charles venait les voir de temps à autre ; mais, au bout de quelques jours, la bru semblait l'aiguiser à son fil ; et alors, comme deux couteaux, elles étaient à le scarifier par leurs réflexions et leurs observations. ① *Il avait tort de tant manger !* ② *Pourquoi toujours offrir la goutte au premier venu ?* ③ *Quel entêtement que de ne pas vouloir porter de flanelle !*

Il arriva qu'au commencement du printemps, un notaire d'Ingouville, détenteur de fonds à la veuve Dubuc, s'embarqua, par une belle marée, emportant avec lui tout l'argent de son étude.(I, 2, 77)

TT 1: 샬르의 모친은 그들을 보러 가끔 오는 것이었으나, 며칠인가 지나

면 머느리는 도끼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마치 두 자루의 칼처럼 그녀들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단점을 찾아서 살르를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① **그녀는 너무 대식가여서 안되겠다는 등**, ② **왜 처음 오는 손님에게 언제나 술을 내놓느냐는, 뽕 후란넬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너무 고집이 세다는! 등**

이른 봄이었다. 뒤뷔꼬 미망인의 재산관리인인 양그벨르에 있는 어떤 공증인이 위탁금의 전부를 가지고 밀물 때를 이용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1965: 28)

TT 2: 샤를르의 어머니는 가끔 젊은 내외를 보러 왔지만, 2-3일 있는 동안에, 머느리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교육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두 연인[sic.]들은 날이 선 칼처럼 잔소리, 군소리로 샤를르를 난도질했다.

『①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요** ② **손님 얼굴만 보면 술을 대접하려 들다니** ③ **플란넬을 입으라고 해도 안 입는 것은 또 무슨 고집이에요**』

이른 봄에 사건이 터졌다. 듀뷰크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영벨의 공증인이라 사람이, 사무소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해외로 도망을 친 것이다. (1972: 23)

TT 3: 샤를르의 어머니는 가끔 두 사람을 만나러 왔지만 며칠만 지나면 머느리의 칼이 시어머니 칼에 날을 세우는 것 같은 꼴이 되곤 했다. 그렇게 되면 두 자루의 칼처럼 그녀들은 잔소리나 참견하는 말로 샤를르를 제물로 만들었다. ① **그렇게 많이 먹어대면 못쓴다!** ② **아무 손님이나 찾아오기만 하면 술을 대접하는 까닭이 뭐냐** ③ **플란넬 옷을 입지 않는다니 무슨 고집이람**

그런데 어느 이른 봄, 뒤뷔크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영구벨의 공증인이 사무실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물때를 틈타 배를 타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2000: 35)

위의 ST와 TT에서 굵게 표시된 이탤릭체 구문들이 DIL과 이것의 번역에 해당한다. 샤를르라는 인물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합심하여서 샤를르에게 잔소리하는 구문 ①, ②, ③이 DIL로 기술되어 있다. 여성들의 잔소리가 의문과 감탄의 양태를 통해서 끈임없이 샤를르를 몰아대는 듯한 어조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이를 통해서 샤를르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였을 지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DIL 구문인 ①, ②, ③ 자체가 어디가 시어머니의 말이고 어디가

며느리의 말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①, ②, ③은 두 여성의 말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것을 확대하면 남자들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T를 검토해보면, 구문 ①의 3인칭대명사와 반과거 시제 ‘Il avait’는 서술자의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구문이 두 여성의 시점으로 표현되었다면 샤를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Tu as’라고 기술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① ② ③의 구문 전체로는 물음표, 느낌표의 활자 지표와 인물의 구어적인 어조를 더욱 강조해주는 양태부사 tant과 toujours 같은 문체 지표들로 인해서 인물들의 음성이 훨씬 크게 들린다. 따라서 의문문과 감탄문으로 구성된 ①, ②, ③은 전체적으로 두 여성 인물의 음성이 서술자의 음성보다 더 많이 들리는 ‘모방적인 DIL’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TT를 검토해보면, 번역문의 종결 어미에 따라서 각각 DI, DD, DIL 번역으로 구분된다. TT1은 매 구문마다 인용 표지 ‘~다는 등’으로 문장을 종결짓고 있다. 인물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혼합된 스타일의 DI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ST와는 달리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의 경계가 인용 표지로 구분되어 있다. 즉 TT1은 서술자의 말이 아니라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인용 표지를 사용하여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TT2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의 도입구 없는 DD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DD로 번역하면 서술자의 음성은 사라지고 인물의 음성만 남게 된다. TT1과 TT2 모두 DIL의 다음성적 모호성이 사라진 번역들이다.

이에 비하여 TT3의 번역은 흥미로운데, ST의 ‘모방적인 DIL’을 번역한 세 구문의 종결어미가 각각 ‘못쓴다!’, ‘뭐냐?’, ‘고집이람!’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 ‘고집이람!’은 명확한 구어 종결어미이지만, ‘못쓴다!’, ‘뭐냐?’는 여러 번 읽어 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어(서술자의 음성)로도 읽히고 구어(인물의 음성)로도 읽힐 가능성이 있다. ST의 DIL이 서술자의 음성보다 인물의 음성이 더 두드러지게 들리는 특성을 감안하면, 종결어미에 서술자의 음성이 약하게 담겨있으면서도 인물의 음성도 동시에 들리는 TT3은 DIL로 번역된 것이다.

ST와 DIL로 번역된 TT3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앞에서 제시한 프랑스어 DIL과 한국어 DIL의 지표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TT3을 시어머니의 말로 해석하면 DDL이 되지만 며느리의 말로 해석하면 인물의 구어를 ‘-다’라는

문어형 어미로 재현한 DIL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머느리의 말로 해석하고 ST와 TT3을 비교해보자.

ST ① Il avait tort de tant manger !

TT3 ① 그렇게 많이 먹어대면 못쓴다!

먼저 통사 지표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어 ST는 서술자 시점의 주어 3인칭 대명사와 반과거 시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어 번역인 TT3은 주어 자체가 생략되어 있고, 구문의 시제도 인물 시점인 현재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인물의 음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문체지표 양태부사 ‘그렇게’와 활자지표인 느낌표는 ST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TT3에서 보이는 이런 언어적인 특징들은 인물의 음성을 재현하는 요소들이다. 여기에 서술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문어형 어미 ‘-다’가 합류하면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혼합하고 있다.

6.2 ‘서술적인 DIL’의 번역

인물 발화의 양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술적인 DIL’은 맥락을 세심하게 읽지 않는다면 서술로 오해하기 쉽다. 특히 아래의 예문처럼 DIL 구문 자체가 상당히 간략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ST: Alors, pour le distraire, Homais jugea convenable de causer un peu horticulture ; *les plantes avaient besoin d'humidité*. Charles baissa la tête en signe d'approbation.(III, 9, 474)

TT 1: 그러자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오메는 약간 원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식물에는 습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샬르는 찬성하는 뜻에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1965: 287)

TT 2: 그래서 오메는 의사의 기분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원예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여 **식물에는 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샬르는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1972: 290)

TT 3: 그러자 그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오메는 원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식물에는 습기**

가 필요하다고 하자 샤를르는 찬성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2000: 472)

위의 예문은 오메Homais와 샤를르Charles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탤릭체 문장은 오메의 ‘말’이 DIL로 재현된 구문이다. ST의 DIL은 서술자 시점과 동일한 반과거 시제 ‘avaient’가 사용되었고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할 어떠한 양태적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앞 뒤 구문의 맥락을 통해서만이 해당 이탤릭체 부분이 오메의 ‘말’이 재현된 DI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IL 구문 앞에 나오는 동사 ‘causer(이야기하다)’가 오메의 ‘말’이 다음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시작표지이고 DIL 구문 다음에 나오는 문장 Charles baissa la tête en signe d’approbation.은 샤를르가 오메의 말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이므로 문장의 의미 자체가 DIL의 종결표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당 이탤릭체 구문의 앞과 뒤의 맥락이 가운데 문장이 서술이 아닌 DIL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번역문들을 검토하면, 세 TT 모두 DI로 번역되었다. DI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번역자들 모두 해당 ST의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서술이 아니라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번역문의 독자들이 인물의 ‘말’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탓인지 모두 DI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구문의 의미는 옳졌지만 구문의 형식은 제대로 옳기지 못한 것이며 서술자의 자리에서 인물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들려주려한 작가의 문체적인 의도를 제대로 재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술자의 말인지, 인물의 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에서 오직 맥락에 의해서 인물의 말이라는 것을 가늠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재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TT도 ST와 마찬가지로 독자들로 하여금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서 서술이 아닌 인물의 ‘말’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래의 대안 번역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번역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의 기분을 전환해 주기 위해서, 오메는 원예 이야기를 약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식물에는 수분이 필요한 것이다.** 샤를르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안 번역에서 이탤릭체로 된 구문 자체에는 오메의 ‘말’이라는 아무런 통사적 표지가 없지만 오메가 원예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샤를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앞 뒤 맥락에 의해서 그 중간 구문인 이탤릭체 부분이 오메의 ‘말’로 해석 가능하다. 반과거 시제인 ST와는 달리 TT에서는 인물의 시점인 현재 시제로 번역되어도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어색하지 않고 서술자의 음성을 반영하는 문어형 어미 ‘-니 것이다’를 종결어미로 사용하였어도 ST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맥락에 의해서 오메의 ‘말’이라는 것이 해석 가능하다.

7. 결론

한 구문 안에서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다음성은 번역에서 반드시 재현되어야 하는 DIL의 핵심적인 특성에 해당한다.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 작가들은 아이러니 효과나 인물과 독자 간의 감정적인 동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DIL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문의 DIL이 번역문에서 다른 화법으로 변형된다면 원작이 의도하는 문체적인 효과를 번역문에서 재현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어 DIL에 대한 언어적인 연구가 대단히 미흡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자들에게 DIL에 담긴 다자간의 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외국어의 DIL은 한국어 번역에서는 DD, DI로 다자간의 음성이 단순화되거나 DDL로 인물의 음성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뿐 아니라 한국어 DIL의 통사적인 특징을 연구한 결과로서 DIL을 구성하는 통사, 문체, 활자 지표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프랑스어 DIL의 다음성을 한국어 DIL로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DIL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번역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ST DIL의 문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DIL의 번역 전략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시된 범주별 지표들을 사용하여 무한한 문체적 조합으로 모호한 다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번역자들의 몫이며, 여기서부터는 번역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랑스어 DIL이 한국어로 번역된 사례를 ‘모방적인 DIL’과 ‘서술적인 DIL’의 한 사례만을 다루는 것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안된 한국어 DIL 지표들을 활용하여 모호한 DIL의 다음성을 재현하는 번역 방안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이연 (2001) 「현대 한국어와 현대 프랑스어의 자유화법에 대한 문체적 연구와 번역의 문제」, 『불어불문학연구』 48: 499-514.
- 김홍수 (2000) 「소설에서 대화 인용의 방식과 양상」, 『어문학 논총』 19: 113-42.
- 박선희 (2007) 「<마담 보바리>의 자유간접문체와 그 번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08) 「『마담 보바리』의 자유간접문체의 번역비평 - ‘말’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145-81.
- 박선희 (2011)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이론 비교 고찰」, 『통번역학연구』 14(2): 137-58.
- 전성기 (2005) ‘Le Style Indirect Libre en coréen」, 『프랑스어문교육』 20: 243-77.
- 정지영 (1996) ‘La technique polyphonique dans Les Thibault et le problème de la traduction en coréen」, 『불어불문학연구』 33(2): 1181-92.
- Authier-Revuz, Jacqueline (1992) ‘Repères dans le champ du discours rapporté (1)’, *L’information grammatical* 56: 38-42.
- Authier-Revuz, Jacqueline (1993) ‘Repères dans le champ du discours rapporté (2)’, *L’information grammatical* 56: 10-15.
- Fludernik, Monika (1993)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allagher, John D (2001) ‘Le Discours indirect libre vu par le traducteur’, In

- Ballard (Ed.), *Oralité et traduction* Arras: Artois U P, 209-44.
- Jansson, Kristina (2006) *Saisir l'insaisissable. Les formes et les traductions du discours indirect libre dans des romans suédois et français*, Göteborg: Växjö U P.
- Jonasson, Kerstin (2004) 'La traduction du discours indirect libre', *Forum* 2(2): 199-219.
- Nølke, Henning. & Fløttum, Kjersti., Norén, Coco (2004) *ScaPoLine: La théorie scandinave de la polyphonie linguistique*, Paris: Kimé
- Park, Sunheui & Jon, Sung-Gi (2011) 'L'évaluation des traductions coréennes du style indirect libre dans *Madame Bovary*', *De la linguistique à la tradutologie*, Villeneuve d'Ascq: Septentrion.
- Rosier, Laurence (2008) *Le discours rapporté en français*, Paris: Ophrys.
- Rouhiainen, Tarja (2000) 'Free Indirect Discourse in the Translation into Finnish: The Case of D.H. Lawrence's *Women in Love*', *Target* 12(1): 109-26.
- Taivalkoski-Shilov, Kristina (2006) *LA TIERCE MAIN Le discours rapporté dans les traductions françaises de Fielding au XVIIIe siècle*, Arras: Artois U P.

- *Madame Bovary* 원본과 번역본

- Flaubert, Gustave (1971) *Madame Bovary* Paris: Garnier Frères.
- 플로벨 (1965) 『보바리 夫人』 오현우 옮김 서울: 정음사.
- 플로오베르 (1972) 『보바리 夫人』 김형수 옮김 서울: 학원사.
- 귀스타브 플로베르 (2000) 『마담 보바리』 김화영 옮김 서울: 민음사.

[Abstract]

The Reproduction of Polyphony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French Free Indirect Discourse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pose ways in which the ambiguous polyphony of Free Indirect Discourse (FID) in a French source text can be reproduced in a Korean target text. Ambiguous polyphony is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es FID from other types of discourse such as Direct Discourse and Indirect Discourse. It eradicates the syntactic boundary between the voices of the narrator and the character(s) in the novel text and mixes their voices in a phrase of FID. Therefore, it must be reproduced in the translation of FID. This study explains the polyphonic features and the indices of FID generally applicable to languages and examines the propositions of previous studies concerning the translations of FID in literary texts. Syntactic, stylistic, and typographic indices of FID in French and Korean language are then suggested, with particular attention draw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yntactic indices of the two languages. This is followed by a proposal of possible ways to reproduce the polyphony of French FID in the Korean translation using the indices of Korean FID. The study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roduction of polyphony of the FID in Korean translations of the French novel, *Madame Bovary*.

▶ Key Words: free indirect discourse, translation of free indirect discourse, indices of free indirect discourse, polyphony, literary translation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학번역 평가

논문투고일: 2011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